

제 1 교시

국어 영역

[고전 소설]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니리)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야. ㉠토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러 들랑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명을 내리노니 별주부 가가 막혀,

(중머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되,

“토끼란 놈이 본시 간사하야 뱃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며는 조목금수(鳥木禽獸)라도 빈정거릴 터이요 맹획(孟獲)을 칠종 칠금(七縱七擒)하던 제갈량의 재주 아니어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하더라도 여한이 없사오니 당장 따 보시오.”

토끼가 가가 막혀,

[A]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아. 왕명이 지중 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절(夏桀) 학정으로 용봉\*을 살해코 미구(未久)에 망국 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련만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서 원귀 되고 너의 용왕 백 년 살 것을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 한낱한시에 모두 다 몰살시키리라. 아나 옛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데 세상 경계가 장히 좋던가 보더라.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토끼는 육지에 당도하여 별주부를 따돌리고 도망치지만 독수리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다.

(나) (중머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수로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에 던져 두고 입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섭소이까.”

(아니리)

“아니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

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춤치’를 하나 주십니다.”

“아니 무엇, ‘의사춤치’라는 것이 무엇이나.”

“글쎄 그것이 이상스럽습니다. 꼭 퍼 놓고 보면 구멍이 한 두서넛씩 뚫어졌죠.”

“그래서.”

“그 한 구멍을 딱 쳐서 ‘씩은 도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고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치며 ‘그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가 일천 오백 마리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보물을 저기 저 무주공산에다가 던져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딱한 일이오.”

“너 이놈 토끼야.”

“네.”

“네 목숨을 살려 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목숨만 살려 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럼 그것이 어데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소주병 들듯 탁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네.”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어서 나 시장해 못 살겠다. 빨리 ‘의사춤치’ 좀 내오너라.”

“장군님, 내 뒷발을 잡고 놓아 달라는 대로 좀 봐 주십시오. 안에 들어가서 내어 올 테니.”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쑥 허니 넣고, “장군님, 조금만 봐 주시오. 아, 달을 만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 조금 조금.”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 장을 내겼다.

“세월이 여류허여…….”

“너 이놈 토끼야. 아, 내 시장해 죽겠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해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 “너 이놈 독술아.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B] “너 이놈, 다시 안 나올라니.”

“내가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서 손주나 봐 주

고 지나갈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춤’이라 하는 것이다.”  
- 작자 미상, 「수궁가」 -

- \* 칠종칠금 :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 \* 용봉 :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곁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44. [A]와 [B]에 나타난 ‘토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 6월 모의 고전 소설 - 46%]

- ①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득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징하고 있다.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요?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들은 이불 속에서 테굴테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붕긔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전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은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요?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월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나.’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물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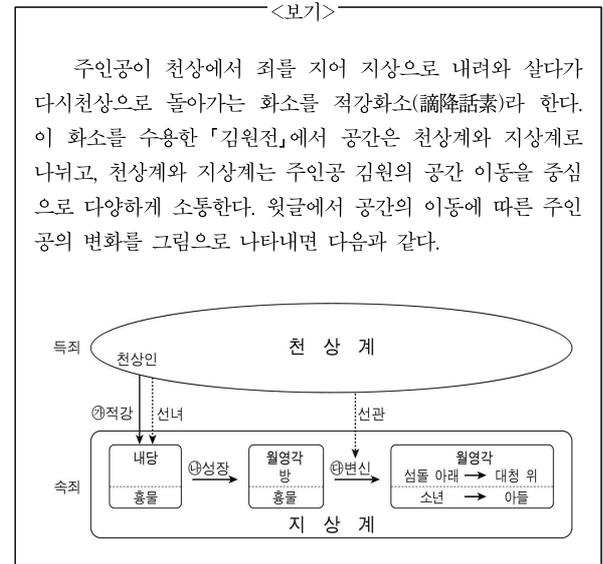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1 9월 모의 고전 소설 - 47%]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텅텅 치는구나. 향단이는 미음상 이고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간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몸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홀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감감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見) 그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우나 입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러니, 이 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

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이, 설위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 나?”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건어 없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겨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어 둘러업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가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 9월 모의 고전 소설 - 45%]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부가 생난리를 한바탕 치르고 정신을 차려 또 동산으로 치달아 보니 박 두 통이 그저 남았거늘 한 통을 또 따 가지고 내려와 쟁보를 달래는 말이,

“이에 쟁보야, 내 일을 불쌍히 여겨라. 재물을 얻으려 하다가 많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설마 박통마다 그러하랴. 이번은 무슨 수가 있을 듯하니 아무 말도 말고 켜 보자.” 쟁보 응낙하고 박을 켜다.

“㉠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겨 주소 톱질이야. 이 박은 켜거든 금은보화가 함부로 나와 흥부같이 살아 보리라.”

놀부 계집이 섰다가 하는 말이,

“다른 보화는 많이 나오되 흥부 아주머니같이 첩은 행여 나오지 마옵소서.”

놀부 꾸짖는 말이,

“가산 탕진하고 상거지가 된 인물이 썸이 어디서 나오느고? 소사스려이\* 굴지 말고 한편 구석에 가 있으라.”

하고 밀거니 당기거니 슬근슬근 타며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이번은 아무 소리도 없는지라 놀부가 대희(大喜)하여 쟁보더러 왈,

“이번은 다 켜도 아무 소리가 없으니 아마 수가 있는 박이라.” 하고 급히 타며 보니 박 속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평평한 박

뿐이어늘 놀부 대희할 즈음에 쟁보가 생각하니, ‘여러 통마다 탈이 났으니 이 박인들 어찌 무사하랴.’ 하고 소피하러 가는 체하고 도망질하니 놀부가 쟁보를 기다리다 못하여 박통을 도끼로 쪼개 놓고 보니 아무것도 없고 허연 박속이 먹음직하게는 제 아내를 불러 왈,

“이 박은 먹음직하니 우선 배고픈데 국이나 끓여 집안 식구들과 먹고 기운 나거든 남은 박은 우리 둘이 타 봄세. ㉡ 옛사람이 이르기를 고진감래(苦盡甘來)라 하였으니 그만치 굶기었으니 필경은 좋은 일이 있지 하늘 뜻이 무심할 리가 있나. 술한 재물을 얻을진대 초년고생은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어서 국이나 끓이소.”

놀부 계집이 기뻐하여 박속을 송덩송덩 썰고 양념을 갖추어 큰 솥에 물을 넉넉히 붓고 통장작을 지피어 쇠옹두리\* 고듯이 만나질을 무르녹게 끓인 후 온 집안 식구대로 한 사발씩 달게 먹은 후 놀부는 ㉢ 배가 붕긔하여 게트림\*을 하며 계집더러 하는 말이,

“그 국맛이 매우 좋다 당동.”

놀부 계집이 대답하되,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 하니 가장 고이하도다 당동.”

놀부 처가 대답하되,

“글쎄요. 나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놀부 자식이,

“여보 어머니, 우리들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오냐, 글썸 그러하다 당동.”

놀부가 꾸짖어 왈,

“너는 요망시리 구지 마라 당동. 무슨 국을 먹었다고 당동하리 당동.”

놀부 계집은,

“그 말이 옳소 당동.”

놀부 딸도 당동, 아들도 당동, 머슴아이도 당동, 놀부 아주미도 당동, 온 집안이 모두 당동당동, 무슨 ㉠가야금 뜯고 풍류하는 것처럼 그저 당동당동, 서로 나무라며 당동당동, 이렇듯이 당동당동 하니 담 너머 왕 생원이 들은즉 놀부 집에서 별별 야릇한 풍류 소리가 나거늘 왕 생원이 곧 놀부를 불러 묻는 말이, “여봐라 놀부야. 너희가 무엇을 먹었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놀부가 여쭙기를,

“소인의 집에서 박을 심었더니 박이 열리어 국을 끓여 먹었더니 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당동.”

생원이 믿지 아니하여 왈,

“네 말이 터무니없다. 박국을 먹었기로 무슨 그러할 리가 있으랴. 그 국 한 사발만 떠 오너라.”

놀부 국 한 그릇을 떠다 주니 생원이 받아 맛을 보매 국맛이 가장 아름다운지라. 그 국을 달게 먹고,

“여봐라 놀부야. 그 국맛이 유명하구나 당동. 아차 나도 당동, 어찌서 당동 하느냐? 당동.”

하며 또 당동당동 소리가 절로 나거늘 생원이 국 먹은 것을 누우쳐 놀부를 꾸짖고 당동당동 하며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놀부 역시 신세를 생각하니,

‘부자가 될 양으로 박을 심었다가 많은 재산을 다 없애고 전 후에 없는 고생과 매 맞은 일이며 끝에 와서는 온 집안사람이 당동 소리로 병신이 되니 이런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 작자 미상, 「흥부전」-

\* 소사스럽다: 보기에 행동이 줌스럽고 감사한 태가 있다.

\* 쇠옹두리: 소의 정강이뼈.

\* 게트림: 거만스럽게 거드름을 피우며 하는 트림.

33. 윗글을 <보기>와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예비시행 B형 고전 소설 - 40%]

<보 기>

17세기 초반에 창작된 「돈키호테」에서, 주인공 돈키호테는 중세의 기사도 이야기에 빠져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학대당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모험에 나선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16세기 서구 사회에 유행한 기사도 이야기에서 사랑에 빠지고 모험에 나서던 기사를 패러디하고 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 ① 돈키호테와 놀부는 각각 중세 기사와 양반 지배층의 전형적 인물이다.
- ② 돈키호테와 놀부는 환상에 빠져 이상적 세계의 재건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 ③ 돈키호테는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고, 놀부는 개인의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 ④ 돈키호테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여, 놀부는 세속적 욕망에 빠져 풍자의 대상이 된다.
- ⑤ 돈키호테는 세속적 가치를 내세워, 놀부는 정신적 가치를 거부하여 현실과 대립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비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에도 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짓고 월령산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A]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①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흥숙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테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상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누구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량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리라. 생 [B] 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 이 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 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 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충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뻐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라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충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었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 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 조대: 낚시터.
- \* 명감: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학년도 대수능 A형 문학(고전 소설) - 48%]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충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뻐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으며, 만고총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 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다. 천하를 성취  
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도다.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  
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오  
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  
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  
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  
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하?”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  
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  
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다.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  
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  
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  
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  
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  
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  
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  
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  
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  
귀를 바빠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  
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  
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  
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  
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  
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  
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  
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  
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  
을 쳤다.

- 작자 미상, 「조웅전」 -

25.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월 모의 고전소설 - 44%]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  
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  
기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 소설]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5시에 ㉠ 컨베이어 앞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은 꼭 학교에 나오라고 한다.

“우선 학교에 나와서 얘기하자.”

버스에 올라탄 선생님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선생님의 손 뒤로 공장 굴뚝이 울퉁울퉁하다. 처음으로 공장 속에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버스가 떠난 자리에 열일곱의 나, 우두커니 서 있다. 선생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내 어깨를 내 손으로 만져 보며.

다음 날 교무실로 나를 부른 선생님은 내게 반성문을 써 오라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사흘 후에 가져와 봐.”

㉡ 반성문을 쓰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산다. 지난날, 노조 지부장에게 왜 외사촌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가를 뭐라구 뭐라구 적었듯이 이제 선생님에게 학교 가기 싫은 이유를 뭐라구 뭐라구 적는데 어느 참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들이 활짝 쏟아져 나온다. 열일곱의 나, 쓴다. 내가 생각한 도시 생활이란 이런 것이 아니었으며, 내가 생각한 학교 생활도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주산 농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 지금은 오로지 마음속에 남동생 생각뿐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애와 함께 살고 싶다고. 반성문은 노트 삼분의 일은 되게 길어진다.

[A] 반성문을 다 읽은 선생님이 말한다.

“너 소설을 써 보는 게 어떻겠냐?”

내게 떨어진 소설이라는 말. 그때 처음 들었다. 소설을 써 보라는 말.

그는 다시 말한다.

“㉢ 주산 농기 싫으면 안 놓아도 좋다. 학교에만 나와. 내가 다른 선생들에게 다 말해 놓겠어. 뭘 하든 니가 하고 싶은 걸 하거라. 대신 학교는 빠지지 말아야 돼.”

그는 내게 한 권의 책을 건네준다.

“내가 요즘 최고로 잘 읽은 소설이다.”

표지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써어 있다.

(중략)

최홍이 선생님. 이후 나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어색한 이향으로 마음에 가뒤흔던 그리움들이 최홍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열일곱의 나, 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가지고 다닌다. 어디서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는다. 다 외울 지경이다. 회재언니가 무슨 책이냐고 묻는다.

[B]

“소설책.”

소설책? 한번 반문해 볼 뿐 관심 없다는 듯이 회재언니가 고개 떨군다. 최홍이 선생님이 마음 안으로 가득 들어찬다.

정말 주산을 농지 않아도 주산 선생님은 그냥 지나간다. 부기 노트에 ㉣ 대차대조표를 그리지 않아도 부기 선생은 탓하지 않

는다.

주산 시간에 국어 노트 뒷장을 펴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본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옮겨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옮겼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옮겨 보지 않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고.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고.

그가 소설책을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 대신 시를 써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으면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그랬었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 내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큰오빠의 가발을 댄댄하게 빗질하기 위해서, ㉤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 낼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설은 그렇게 내게로 왔다.

십이월 중순이 지날 때까지 나는 한경신 선생이 보낸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 가끔 편지를 꺼내 전화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9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읽어 보곤 했다. 842-xxxx. 몇 번 편지를 꺼내 읽고 다시 넣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시간은 자꾸 흘러 한경신 선생이 학교에 왔으면 하는 기간인 12월 초와 중순을 지나갔다. 이제는 방학을 했겠구나, 싶었을 때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서랍에 넣으면서 그 학교를 떠나온 햇수를 헤아려 봤다. 떠나온 지 십삼 년이다.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겐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나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써 보기로 했다. 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트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

- 신경숙, 「외딴 방」 -

\*이향 : 고향을 떠남.

23. 다음은 작가가 남긴 창작 노트의 일부이다. 이 노트의 내용이 [A], [B]에 실현된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0 6월 모의 평가 현대 소설 문제 - 46%]

- 시제의 변화 ..... ㉠
- 문단 나누기의 효과? ..... ㉡
- 간결한 문장 위주로 쓸 것 ..... ㉢
- ‘나’를 부르는 방식에 변화를 줄 것 ..... ㉣
- 대화보다는 심리 묘사 위주로 ..... ㉤

- ① ㉠은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② ㉡는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어 인과 관계를 명료화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③ ㉢는 [B]에서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는 [B]에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여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 ⑤ ㉤는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는 식으로 실현되었군.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갯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올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 내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흘끗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자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즐고 있어 불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환산했고 지물포나 사진관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 둔 채였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짝끔 새어 나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A]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 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달려 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뒷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짧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중략)

가게 앞에 서서, 찹찹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옷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다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찌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변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 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가는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겟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리닝셔츠가 썩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멀쩡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은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37.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 학년도 예비시행 A형 현대 소설 - 47%]

- ①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②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 ③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 ④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 ⑤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차가 남대문에 닿았다. 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 사방에 반짝반짝 전기등이 켜졌다. 전차 소리, 인력거 소리, 이 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 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 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 사람의 귀에는 꼭 소요하게 들린다. ‘도회의 소리!’ 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 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 잘된다. 수레바퀴 소리, 증기와 전기 기관 소리, 쇠마차 소리 …… 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서 비로소 찬란한 문명을 낳는다. 실로 현대의 문명은 소리의 문명이다. 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 종로나 남대문동에 서서 서로 말소리가 아니 들리리만큼 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쌍하다. 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만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 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듣고 기뻐할 줄을 알고, 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 내도록 되어야 한다. 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 왜 저 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 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 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 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 전차가 주야로 달아나는지 ……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는가.

㉠ 이렇게 복잡복잡하는 속에 영채는 행어나 누가 자기의 얼굴을 볼까 하여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병옥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 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 어깨를 치며,

“병옥 언니 아니야요?” 한다.

병옥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 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

“에그, 얼마 만이여!”

“그런데 어디로 가요?”

“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 ……”

“왜, 어느 새에 …… 여보,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 것이 아니라 …… 그렇게 무정하오.” 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 우리 집으로 감시다.” 한다.

“아니오. 동행이 있어서 …… 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

“응, 아니, 언니 모르세요?”

“무엇을?”

“에그, 저런! 저 선형이 알지요. 선형이가 오늘 미국 떠난다오.”

“선형이가 미국?” 하고 놀란다. 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선 것을 가리키며,

“저기 댕는데 …… 이번에 혼인해 가지고 양주가 미국 공부 하러 간다오. 잘들 한다. ㉡ 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

병옥은 여학생을 따라 선형이가 댕다는 차 앞에까지 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 곁에 갈 수가 없다. ㉢ 선형은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 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 그 곁 창에는 어떤 양복 입은 젊은 신사가 그 역시 연해 고개

를 숙여 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 전승인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 한편에는 여자만 모이고, 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 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 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 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 중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 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 올라왔다. 영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 내리고 새로운 승객이 거의 만원이라 하리만큼 많이 올랐다. 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 걸고, 어떤 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 들고 앉았다.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 병욱과 영체 둘뿐이다. 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체더러,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

“㉠어제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혼란하여 집니다. 그러. 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 할 때에 벌써 종 혼드는 소리가 나고, “사요나라, 고기겐요우.” 하는 소리가 소낙비 같이 들리더니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 ㉡어디서, “만세, 이 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인다. 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 사람의 창밖으로 열른한다. 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 파나마 쓴 패였다. ㉢병욱은 아까 선형의 곁에 있던 사람이 형식인 것과, 형식이 선형의 지아빈 줄도 짐작하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영체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 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 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 형식이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 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

- 이광수, 「무정」-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예비시행 B형 현대 소설 - 47%]

- ① ㉠: ‘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음을 판단하고 있다.
- ② ㉡: ‘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묘사되고 있다.
- ③ ㉢: ‘영체’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⑤ ㉢: ‘병욱’은 타인의 일에는 관여하기를 싫어하는 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고전 시가]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  
 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 났나 붓으로 그려 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A]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들쏘냐.  
 - 정국인, 「상춘곡(賞春曲)」-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쪼어 쥐어 벗어 괴어 내니 [B]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옛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시대를 훑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  
 러우랴.

헛글고 싣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체적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메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C]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싣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 대수능 갈래복합 - 43%]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흐고  
 넷사롭 풍류를 미출가 못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진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것가  
 ②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여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고대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이 다들소나  
 시비에 거러 보고 ⑥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하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③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이란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내일 흐세  
 아춤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세  
 꺾괴여 닉은 술을 갈진(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④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⑤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요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④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하니 벗님 님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흐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② 관암에 히 비췌다  
 평무(平蕪)에 니 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니노라  
 ③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도 7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①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서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⑤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흐고 볼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홈: 기운이 맑고 깨끗함.

19. ㉠~㉦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9월 모의 고전시가- 49%]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을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늪들은 온는다 흐다마는

㉡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밭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윗 굴 몫7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뵘 흘 보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웁도 아녀도 물네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흥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득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흥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나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프리 갑고자 흐야도 희울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9월 모의 평설-고전시가-고전수필 - 42%]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쥘소나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석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빚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A]

[B]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 다시: 시기가 많음.

\*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혼덕혼덕** [C]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울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 작자 미상 -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2학년도 9월 모의 고전시가- 42%]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술이 상에 올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혼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쪽'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현대 시]**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중일**

니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다.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젠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해어름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남은 집」 -

\* 예제로: 여기저기로.

45. <보기>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대수능 B형 문학(현대시) - 42%]

<보 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에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편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냇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2년도 6월 모의 현대사- 43%]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처.

[A]

피엄 피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C]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멧목**을 타고  
돈 벌러 향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D]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놀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E]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겨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팔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다.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절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서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2년도 수능 현대시-고전수필- 42%]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국평일 배포 자료 문학 정답률(40~49%)

by 평가원

### 정답

- 2010학년도 6월 「수궁가」 44번 ①
- 2011학년도 9월 「김원전」 22번 ④
- 2013학년도 9월 「열녀춘향수절가」 21번 ⑤
- 2014학년도 예비 B형 「흥부전」 33번 ④
- 2015학년도 수능 A형 「소대성전」 35번 ①
- 2020학년도 6월 「조용전」 25번 ①
  
- 2010학년도 6월 「외판 방」 23번 ③
- 2014학년도 예비 A형 「원미동 시인」 37번 ⑤
- 2014학년도 예비 B형 「무정」 37번 ④
  
- 2011학년도 수능 「상춘곡」/「울리유곡」 29번 ④
- 2020학년도 9월 「상춘곡」/「고신구곡가」 19번 ③
- 2021학년도 9월 「만흥」 38번 ①
- 2022학년도 9월 「규원가」/「재 위에 우뚝 선~」 34번 ②
  
- 2015학년도 수능 B형 「고향 앞에서」/「낮은 집」 45번 ①
- 2022학년도 6월 「연륜」/「대장간의 유혹」 34번 ②
- 2022학년도 수능 「초가」/「거산호」/「담초」 23번 ④